

방치된 5·18 구묘역... 열사들 '눈물'

이한열 등 민주열사 42명 묻힌 곳... 기념비 하나 없고 편의시설 부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오롯이 새겨진 공간
정부 무관심 속 참배객 한산



8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구묘역에 자리 잡은 민주열사들의 묘소가 한산하기만 하다.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열사 42인이 잠든 이곳엔 정부가 세운 기념비나 묘역 안내소조차 없을 정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구묘역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6월항쟁 30주년 기념식을 시민사회와 함께 치른다고 들쭉거리고 있지만 정작 1987년 6월의 한복판에서 스러져간 이들이 잠든 518구묘역 민족민주열사들의 무덤은 쓸쓸하기만 하다. 8일 찾은 5·18구묘역은 참배객 숫자를 손으로 셀 만큼 한산하기만 하다.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다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의 묘소 앞엔 언제 왔는지도 모를 조화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광주학살의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명한 노동자 표정두 열사를 비롯한 민족자주, 독재타도, 민족통일, 노동운동, 학원민주화운동의 맨 앞줄에 섰던 42인의 민족민주열사들의 묘 전체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30주년 6월 항쟁을 맞이할 운명이다. 최근에는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1년 학원자주화 투쟁에 나섰다 경찰의 집단 구타로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의 가족이 5·18구묘역에 묻혔던 열사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시민들의 무관심의 배경엔 정부와 광주시의 철저한 외면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와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5·18구묘역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열사들이 잠들어있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전국의 518을 기억하겠다고 외쳤지만 묘역 어느 곳을 둘러봐도 정부가 세운 기념비는 없다. 여기 잠든 이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해둔 표지판 하나 없다.

5·18 구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지에 설치된 안내판 역시 시민단체(광주·전남추모연대)가 마련했고, 해마다 열사들의 기일에 추모제를 여는 것도, 연초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는 일 또한 시민단체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세상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5·18기념식이 열리

는 5월과 6월이면 5·18구묘역을 단체로 방문하는 추모객들이 있지만 변변한 화장실조차 없고 앉아서 쉬만한 벤치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반독재투쟁, 학원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 열사를 추모하는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김순(여·45) 사무국장은 "5·18 구 묘역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어지는 공간이지만 정부와 광주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방문객용 화장실은 물론 열사들 추모제를 올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5·18구묘역을 찾을 때 다는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5·18구묘역은 묘역 명칭이 말해 주듯이 5·18 당시 희생된 시민들이 묻혔던 곳이다. 1997년 518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국립5·18 민주묘지가 조성되면서 5·18 열사들은 옮겨졌다.

5·18구묘역에는 이한열 열사 등 42인의 열사가 잠들어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남주·이철규·표정두·박승희·백남기 ...

5·18 진상규명 투쟁, 통일·노동운동 헌신

구묘역 민주열사 42인은

표정두, 박승희, 이한열, 이철규, 김남주, 노수석, 김양무, 백남기...

80년 5월 이후 80~9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민주열사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현재 망월동 5·18 구 묘역에 잠들어 있다. 5·18 구묘역은 본래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민들이 묻혔던 곳이다.

1997년 조성된 신묘역(국립5·18민주묘지)으로 5·18열사들은 모두 옮겨진 뒤 구묘역은 5·18 이후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다 숨진 열사들과 노동·통일운동 등에 앞장서다 산화한 열사들이 출몰이 안정되면서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9일 현재 5·18구묘역에 안장된 열사는 모두 42명. 안출했던 시절, 민주화를 외쳤던 열사들의 사진(좌측)은 대부분 분신과

투신, 의문사였다.

1987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명한 스물 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명한 스물 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호명한 전국의 5·18 열사도 여기 잠들어 있다.

미국에 대한 광주학살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미운동을 벌이다 1986년 분신한 스물한 살 서울대생 이재호. 1987년 학내 민주화와 미 제국주의 배격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물한 살 서울교대생 박선영. 그리고 경찰 최루탄에 얼굴을 맞고 숨져 1987년 6월 항쟁의 기록자가 됐던 이한열 열사. 같은 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성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스무 살 목포대생 박태영 등이 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절묘한 인사·과감한 개혁

준비된 대통령 '파격 질주'

野外 협치·사드 등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8일로 취임 30일째를 맞았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를 통해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았음에도 지난 한 달간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게 문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관련기사 3·10면>

물론, 지나온 한 달로 전부를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문 대통령은 파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인사와 과감한 개혁조치는 물론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호평을 받음으로써 임기 초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인사검증 부실로 조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협치'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 또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적 난제 역시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달려온 지난 한 달을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통합'과 '개혁'이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배경과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탕평인사'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지명 등 그동안 극도의 인사소외를 받아온 호남출신 인사를 요소에 기용, 호남의 좌절감을 어루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도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고사자 불린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2억 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좌와 우를 아우르는 '보훈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탈이념적 국민통합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합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문 대통령 초기 국정운영에 국민이 높은 점수를 주는 요인이다.

물론, 지나온 한 달로 전부를 평가하기는 이르렀다. 구시대적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않고는 이념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이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밝혀온 개혁구상을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한인 '업무지시' 형태로 내놓으면서 구체화해나갔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셋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밝혀온 개혁구상을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한인 '업무지시' 형태로 내놓으면서 구체화해나갔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셋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밝혀온 개혁구상을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한인 '업무지시' 형태로 내놓으면서 구체화해나갔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셋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밝혀온 개혁구상을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한인 '업무지시' 형태로 내놓으면서 구체화해나갔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셋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신팔도유람 - 경북 울진 ▶18면

페럼 임기영 '심각한 건 아니나' ▶20면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박+항공

※선착순 한정 특가

3일 특큐슈 298,000원 부터
4일 특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임,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 1만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특별항공사 : 개인 여행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상 출/도착

상 품 특 전 : 투본강투어(목공예마을+도자기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발 마사지 60분(발, 발, 노니비누 1개/인)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알링프 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낵, 마사지 1시간
별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경비(\$50/인·5일, \$60/인·6일) ※선착순, 아동 중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 1만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특별항공사 : 개인 여행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2억 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기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호텔,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